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0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충현의 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피는 정성을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환영회

지난 주간은 우리 충현교회에 있어서 보람 있는 날이었다.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 전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도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온 성도가 힘을 다해 전도에 전력한 적은 없었다. 작년 말부터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총동원 전도 주일을 정해 놓고 전도하는 일을 추진해나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일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만여명 이상을 초청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한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쾌거로 결론을 맺었다.

지난 주에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실시한 결과,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총 26,426명인데 이 중에 우리 교회의 고정 출석 인원인 14,000명을 제외하고 또 성가대의 중복적인 예배 참석인원인 1,426명을 제외하면 그 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은 사람이 11,000명이 된다. 7부에 걸쳐서 예배가 드리지는 가운데 1부, 6부, 7부를 제외하고는 본당이 좁을 정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3부 예배는 본당이 좁아

서 갈릴리홀과 배다니홀에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자 성가대가 한 편으로 몰려 앉고 성도들이 성가대석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초청자 카드를 기록한 사람은 7,404명이었으며 예배 시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1,685명이나 되었다. 이 중에 교구 결신자는 1,350명, 교회학교 결신자는 323명, 기타 12명이다. 또한 10월 중 영아부에서 청년3부까지 총동원하여 전도한 숫자는 476명이다. 이 숫자는 우리 교회에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큰 일을 처음 치르는 과정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성공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숫자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이런 숫자 속에서 질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결실은 앞장서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심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는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의 결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 전도 집회는 예전과 달리 동원식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일이었기에 더욱 더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날에 얼마나 인도하여 왔는가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양육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을 위해 오늘 4부 예배 후 2시에 본당에서 새가족환영회를 베푸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주 동안 특별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서 더욱 더 뜨거운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인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늘 옆에서 보살피주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 전도에 기울었던 정성을 이제는 양육으로 기울여서 결신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찾아가서 권고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온 성도가 다시 참여하여 확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자.

홍보물 제거

대규모 군중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쓰레기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그 상황이 다르다. 아무리 큰 행사를 치르고 난 후라 할지라도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마치면서 느낀 것이 역시 교회의 행사는 뒷마무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벽에다 붙인 포스터다. 날짜가 지난 포스터는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동안 붙였던 모든 홍보물을 이번 주간에 다 떼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15일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아오는 11월 15일은 추수감사절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감사의 예를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학교별로 축하행사를 갖는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차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15일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오는 11월 15일 제2차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실천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이미 지난 6월 14일에 전개한 바 있다.

추수감사절인 15일에 전개되는 2차 헌혈 운동에 충현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도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의 협조로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앞뜰에서 전개된다.

군복음화 위한 사업 전개

연무대 세례식 지원 및 계룡교회 방문키로

우리 교회는 군전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4일 논산 연무대교회의 세례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목사들과 장로들이 헌지로 내려가 3천여명의 군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

한편 대전 육군본부 앞에 건축

중인 계룡교회에도 방문하기로 하였다.

강생보호회 기독교 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지난 11월 6일 금란교회에서 법무부 강생보호회 전국 기독교 연합회의 전국 대회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톨슨성경 1천권을 기증하였다.

제1회 성극 정기 발표회

고등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1회 성극 정기 발표회를 마련하였다.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참신한 시각으로 선보일 이번 공연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일시 : 11월 8일 오후 1시, 3시 30분
- 장소 : 나사렛홀
- 제목 : "죽음의 계곡을 찾아서"
- 주관 : 고등부 마라나타성구부

'92 예수 사랑 큰 잔치

간증문 모집

이번에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미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특별히 안 믿는 식구들을 초청하여 교회로 모셔오기까지 겪은 수 많은 어려움과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주간충현에 연재로 기록함은 물론 책으로 엮으려고 한다. 특별히 '92 예수 사랑 큰 잔치 보고서를 만들면

서 이런 글을 다 실으려 한다.

이 책에는 성공담만 기록하지 않는다. 전도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실는다. 전도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했으나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도 실으려고 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도 실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결실있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기적의 조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8:13~23)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무료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

2 두 명의 제자 지망생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마8:19)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좃겠다고 했습니다. 좃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서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좃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 지망생인 서기관은 너무나 서둘렀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서둘러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지망생인 서기관에게

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기복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기복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것을 전혀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풍성하게 주시지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청년은 너무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빨리 후회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제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 청년은 결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또 다른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 것입니다.

첫번째 청년은 너무 서둘렀고, 두번째 청년은 소명을 받고도 너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과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3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결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가난도 각오하고 손해도 각오하고 욕먹는 것도 각오하고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심지어 집까지도 없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주님의 소명없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청년은 주님의 소명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를 때 따라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만 부르셨습니다.

세번째로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가 있어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마8:21, 22)

물론 이들은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를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부모님이 교황이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게 때문에 자식이 그 부모의 곁을 떠나면 안됩니다. 멀리 갔다가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때문입니다. 또 병든 부모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서 이 청년의 부모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령이거나 병들어 누워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훌륭한 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1년 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시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

습니다. 세상일에 우선권을 두면 안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첫째로 가난과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두번째는 주님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세번째는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선생님처럼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실업조를 대도 고난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일조 정신으로 살 때, 청지기 정신으로 살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이고 원리적인 축복도 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를 자짐으로써 주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떨쳐버려야

도를 믿을 때 우리들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1 명령의 이유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마8:18)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의(義)의 태양 이십니다. 태양은 한 지역만 비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태양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앉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것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물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된다는 것을 최상의 진급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진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명예가 아닙니다.

세번째 이유는 저들의 복음에 대한 열심을 시험해보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좃아가면 쟁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고치고 영혼이 구원받고...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과 내세라는 전체를 통해서 볼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부로서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도 있고,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그는 물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힌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이라고 오해를 할 만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만 본다면 시몬 베드로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부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

사진으로 본 '92 예수 사랑 큰 잔치



◀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본당이 가득 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 이날 처음 나온 새가족들에게 "활영"스티커를 가슴에 붙여 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갑게 맞았다.



◀ 육의 양식인 떡도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다.



◀ 새가족들은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결신카드를 작성하였다. 이 카드를 근거로 교회는 심방을 하며 이들의 신앙 성숙을 뒷받침하게 된다.



천양은 말씀 선포와 함께 새가족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 이번 잔치를 통해 전도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의 씨앗을 더욱 많이 뿌리고 싹을 키워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①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후기 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김양홍 목사(배기운동본부 홍보부와 지도)

사도 바울은 무수히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의 고난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돌로 맞음과 강도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자제 못함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수고함과 애쓰고 주림과 목마름과 환고 험벗음에서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생활을 했다.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 무수한 환난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기어 나갔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려고 했다. 자신이 질병에 시달리자 하나

족하다고 고백을 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번에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홍보부와라고 하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이런 조직적이고 큰 일을 처음 맡아보는 입장이라 한편으로는 큰 일을 맡아 처리해 나갈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의 부족으로 혹시 어려움이 생기지나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일을 차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역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었다. 성도들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쪽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다른 한 쪽의 불평을 사야만 했고,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다치

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는대로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맺어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어떤 때는 급하게 서두르다가 부닥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다가 소리도 났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으로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부족이 가려지면서서 무난히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날씨가 맞추지 못해 일이 어긋날 때에도 같이 일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매꾸어주었고 홍보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과 여직원과 대학부 학생들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 나갔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은 더욱 더 아름다웠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그래서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마치고 나서 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이룬 이 잔치는 비록 우리가 협력하였으나 우리의 힘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더 충성하게 하소서.

헌혈과 추수감사절

이흥성 목사(제17교구·사랑부 지도)

가을은 결실과 축복이 영그는 계절이다. 들에는 오곡이 영글고 지성의 가슴에는 감사가 무르익는다. 이 영광의 계절이며 감사의 계절인 가을 아침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깨닫는다.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들에 관한 언급들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34:22)라는 기록과 신명기의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즙을 짜는 술들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일 때 이레 동안 초막절 축제를 올려라"(16:13)라는 기록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620년 9월 2일 신대륙을 향하여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했던 102명의 신앙인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여 철저한 개혁의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착을 시작하여 마침내 신앙의 자유와 추수의 기쁨 가운데 1621년 11

월 마지막 목요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비롯된다. 미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부터 전래된 이 절기는 지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한국 교회의 3대 절기로 정착되었다.

언젠가부터 교계의 일각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의 기간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하여 지키려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의 가락인 국악(농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먹거리로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만나는 추수감사예배로의 시도이다. 이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수확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토착화하여 우리 속의 실제적인 감사정신을 찾으려는 것이다. 전남 장성의 ○○교회는 전지역 농민 감사제로 승화시켜 행사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 광명시 ○○교회는 추석 직전 주일에 '모교회(母教會)를 생각하는 헌금' 봉투를 나누어주어 교향에 내려갈 때 농촌의 모교회에게 도시 교회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있고, 서울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헌금을 전혀 교회 재정에 충당치 않고 전액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교비

로 사용해 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감사절의 본래 정신을 찾고자 하는 개방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땅과 그 소산과 산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여 주위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는 영혼의 귀소본능을 느끼게 된다. 어떤 이는 고독 속에서 허전한 영혼을 위로하며 달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자 한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감사의 정신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찾아보자. 무엇으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사는 생명! 이 생명이 만나는 이 가을, 이 감사의 절기에 조용히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권면

성경 여섯째권 - 여호수아

1. 제목
성경 여호수아는 이 책의 주요 등장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이 책은 예언서의 첫번째 책이다.

2. 저자
이 책의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다(수24:25, 26, 수6:26; 왕상16:34).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나 그가 죽은 후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 예를 들어 갈렙의 헤브론 정복,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묵인한 이후의 사건인 단 지파의 레센 정복과 같은 사건 - 분명히 여호수아의 기록이 아니다.

3. 목적
여호수아는 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 책에는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하에

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는가와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락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에서 떠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어 행태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투쟁과 승리, 축복의 체험으로 설명되어진 다.

4. 개요
(1) 가나안땅으로 들어감
(2) 가나안 정복
(3) 가나안땅 지역 분할
(4) 요단 동편 지파들의 출발
(5) 여호수아의 죽음

을 하고 싶다. "당신의 생명(파)을 수술대 위에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양육특별공과
(1992. 11. 13)

제1주 확실한 우리의 구원

· 본문 : 요한일서 5장 1절~13절 · 찬송 : 182장, 205장
· 요절 :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관한 확신과 더불어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받았는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모르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이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1) 우리가 연약하여 이를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롬 8:3)
(2)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오직 믿음이 열쇠입니다.

(1) 오늘 공과와 요절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하였습니까?
(2)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롬4:2, 3)

3.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 구원을 확신할 최고의 근거를 다음에서 각각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10:28, 29)

(롬8:31~39 특히 39절)

(2) 확신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은 어떠합니까?(요일5:11, 12)
(3) 우리 안에 주어지는 주관적인 근거는 어떤 증거일까요?(요일5:10, 3:24)

4.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1)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정확한 일시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확신(인식)이 있기 전에 구원의 분명한 사실(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2)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요1:12)

◆ 적용

(1) 구원은 영원불변한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구원에 관하여 감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에 굳게 서서"(골2:6)

(2)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요일3:14)

(3) 믿고난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요일1:9)

(4) 구원의 확신은 능력있는 신앙 생활과 직결됩니다. 확신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늘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방심 말고 힘쓰십시오.(벧후1:10, 11)

(5) 구원의 확신에 관한 위의 성구들을 암송하고 사용하십시오. 외우고 있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십시오.